

農村夫婦의 配偶者役割評價와 結婚滿足度

—Role Evaluation of the Spouse and its Effect on Marital Satisfaction Among
the Korean Rural Couples—

한국교원대학교 가정교육학과 대학원

서 광 회

한국교원대학교 가정교육학과

조교수 조 병 은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Student, Suh, Kwang Hee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 of Education

Assistant Prof.; Cho, Byung Eun

〈목 차〉

I. 서 론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문제

IV. 연구방법

V. 결과 및 해석

VI.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Abstract〉

This study is designed to understand marital relationships of the rural couples in Korea. The primary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marital satisfaction and role evaluation of the spouse and to construct a path model in which shows the relationships among background variables, role evaluation of the spouse and marital satisfaction.

Structured questionnaires from 435 couples with school-age children and teenagers living in rural area are analyzed in this study.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

1. Factor analysis of the role evaluation of the spouse results in 4 factors for both husbands and wives; emotional support-sexual role, child socialization-economic

role, kinship role and housekeeping role.

2. The most important factor influencing the marital satisfaction is the role evaluation of the spouse on emotional support-sexual relation. While the number of children, and role evaluations of the spouse influence directly on the marital satisfaction of the wives, age, level of education, level of income and husband's occupation influence indirectly through role evaluations of the spouse on that of wives.

3. For husbands, family life cycle and their occupation influence indirectly on the marital satisfaction of the husbands and the marital satisfaction of them is also mediated by role evaluations of the wives. Level of income of the family not only influences directly on marital satisfaction but influences on it indirectly.

4. Marital satisfaction is mediated by role evaluations of the spouse. The role evaluation of the spouse on emotional support-sexual relation has the most powerful effect on the marital satisfaction for both wives and husbands. About 60 percent of the variance in the marital satisfaction of rural couples can be explained by the role evaluation of the spouse. Therefore, the result of the study indicates that the role evaluation of the spouse on emotional support-sexual relation plays a significant part in determining the marital satisfaction of rural couples.

I. 序 論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가족은 부부중심의 핵가족화로 되어짐에 따라 부부관계의 특성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도시부부를 중심으로 한 부부관계 연구에 의하면 제도적 가족에서 부부 중심의 우애적 가족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과도기임이 밝혀졌다(박찬미·서병숙, 1987; 최연실·옥선화, 1987; 최규련, 1988; 이동원, 1988; 김미숙·김명자, 1990). 이러한 과도기적 특징으로 말미암아 가족의 구조와 기능, 의식과 행동, 집단, 지역간에 변화의 속도나지 정도에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전통적인 것과 비전통적인 것이 혼재하고 있다(서병숙·김윤, 1983; 박혜인, 1989; 옥선화, 1989). 이런 일련의 변화 과정에서 한 가족내의 남편과 부인도 서로 다른 변화의 속도와 정도의 차이로 인하여 가정에서 수행해야 할 각자의 역할을 기대와 다르게 인지함으로써 역할기대와 수행간의 차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고 이에 대한 남편과 부인, 각각의 지각과 인지가 결혼만족도에 영

향을 미치리라 예상된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볼 때 배우자역할평가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 여겨진다.

부부 역할에 관한 우리나라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가정내에서 누가 어떠한 역할을 담당·수행하고 있는가를 검토하는데 치중되어 있고, 부부간의 어떤 역할분담구조를 기대하는가에 대해 일부 연구되었으나(김효숙, 1988), 배우자역할수행에 대한 평가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며 연구대상이 한정되어 도시부부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더우기 배우자역할평가를 매개로 하여 결혼만족도와와의 관계를 체계적 인과모형으로 구성하여 검증한 경험적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결혼만족도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가 도시 특히 서울시 중류계층 이상의 도시부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농촌부부에 대한 연구가 매우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오인숙, 1989; 이미숙, 1990). 이러한 농촌가족 연구의 부족은 농촌가족의 특성에 대한 이해의 부족을 초래할 수 있다. 농촌의 경우, 도시보다 전통적 권위구조와 가족주의가치관이 더욱 뿌리깊게 남아있다는 연구(박혜인, 1989; 오인숙, 1989; 김양

회, 1991a)가 있으므로 도시부부의 관계만을 연구한 결과를 우리나라 가족의 부부관계에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전지에서 본 연구는 농촌부부의 역할에 대해 配偶者役割評價를 중심으로 결혼만족도와와의 관련성에 대하여 성별과 역할영역별로 고찰함으로써 농촌부부의 결혼만족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이며 그것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를 인과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부인과 남편의 차이 및 기존에 연구된 도시부부에 관한 연구결과와 농촌부부의 배우자역할 평가의 영역별 영향력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아울러 본연구는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농촌부부의 특성을 밝히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 부부관계의 특성을 일반화하며 농촌부부의 만족한 결혼생활에 유용한 예측적 자료를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

II. 理論的 背景

1. 부부의 역할 분석

부부는 가정내에서 여러가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가운데 가족의 기능이 발휘되고 가족생활이 유지된다. 부부역할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나이(Nye, 1974)는 미국의 부부역할에 대한 조사연구에서 부부역할을 수입원의 역할, 가사역할, 자녀양육의 역할, 자녀의 사회화 역할, 性的 役割, 오락의 역할, 치료적 역할 및 친척에 대한 역할의 8개 역할로 구분하였다. 우리나라의 부부역할 연구에서 적용된 역할영역을 살펴보면 이미숙(1979)은 부인의 역할을 家事, 수입원 및 지출, 자녀교육 및 사회화, 여가활동, 친척관계, 夫婦和合의 6개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옥선화(1980)는 夫婦의 역할을 자녀교육 및 사회화, 가사, 경제활동, 여가활동, 대외적 활동의 5개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최규련(1988)은 愛情 및 性的 役割, 오락 역할, 동반적 역할, 치료적 역할, 수입원 및 금전관리 역할, 가사 역할, 자녀교육 및 양육 역할, 친척에 대한 역할, 직업이해 역할, 남편의 직업활동 역할로 부부역할을 분류하였다. 유영주(1990)는 우

리나라 가족이 性 및 愛情, 친척관계유지, 정서적 지지 및 안식처, 자녀의 사회화 및 교육, 경제적, 종교·도덕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이들 역할영역을 분석해 보면, 이미숙의 夫婦和合 영역은 性 및 愛情役割과 정서적 지지역할로 구성되어 있고, 옥선화의 부부역할 분류에는 性 및 愛情役割과 정서적 지지역할이 제외되어 있으며, 최규련의 동반적 역할은 유영주의 性 및 愛情역할에 포함되고, 최규련의 치료적 역할과 직업이해역할은 정서적 지지역할로 볼 수 있으며, 남편의 직업활동역할은 경제적 역할에 포함시킬 수 있다. 농촌가족을 포함하여 우리나라 가족을 대상으로 한 유영주의 연구에서 오락의 역할은 정서적 지지와 동일한 요인으로 밝혀졌으므로 정서적 지지와 오락을 한 영역으로 합하여 이를 종합하면 다음 <표 1>과 같이 6개의 부부역할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역할영역분류를 기본으로 각기 영역별로 적절한 역할들을 선정하였다.

2.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결혼만족이란 각 배우자가 자신의 결혼생활에 대해 느끼는 만족한 감정의 정도를 주관적으로 평가한 개념으로서, 한 배우자에게 만족스러운 것이 다른 배우자에게는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동일한 결혼관계 내에서도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수준의 만족감을 가질 수도 있다. 이때 결혼관계에서의 기대, 실제, 代案들은 두 사람 모두에게 변화되기 쉬운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결혼만족이란 動的인 상태에 있게 된다고 한다(Adams, 1980; Gullotta et al., 1986).

결혼만족에 관한 기존의 실증연구 결과를 분석 고찰하는 것이 척도의 다양성과 표집방법상의 여러 문제로 인해 일반화에 한계가 있으나 전반적인 경향을 개관하는데 의의를 두고 각 변인별로 결혼만족도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사회인구학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표 1) 부부역할의 분류

부부역할영역	연 구 자				
	이 미 숙 (1979)	옥 선 화 (1980)	최 규 련 (1988)	유 영 주 (1990)	나이(NYE) (1974)
애정 및 性的 역할	부부화합		애정 및 性동반적	性 및 애정	性
정서적 지지 및 오락 역할			치 료 적 직업이해	정서적 지지 및 안식처	치 료 적
	여 가	여 가	오 락		오 락
자녀양육 및 사회화	자녀교육 및 사회화	자녀교육 및 사회화	자녀교육 및 양육	자녀 사회화 및 교육 종교·도덕	자녀양육 자녀사회화
경제적 역할	수입원 및 지출	경 제	수입원 및 금전 관리 직업활동	경 제	수 입 원
가사역할	가 사	가 사	가 사		가 사
친척관계유지 역할	친 척	대 외 적	친 척	친 척	친 척

1) 사회인구학적 요인 및 심리적 요인

사회인구학적 요인으로는 주로 성별, 연령 및 결혼지속년수, 교육수준, 직업, 수입, 자녀수 등을 다루었다.

성별에 따른 결혼만족도의 차이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결혼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양현아, 1986; 이인수·유영주, 1986; 조성옥·신효식, 1987; 이동원, 1988; 최규련, 1988). 이러한 경향은 부부가 동일한 결혼생활에 대해 다르게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연령 및 결혼지속년수와 결혼만족과의 관련은 대체로 결혼초기에는 결혼만족도가 높다가 결혼지속년수가 증가할수록 낮아지거나 노년기에 상승하는 경향(송말희·이정우, 1986; 박찬미·서병숙, 1987; 임정빈·문숙재, 1988; 최규련, 1988)을 보이고 있다고 하나 종단적 연구에 의해 보완되지 않고서 횡단적 연구만으로는 명확히 설명될 수 없을 것이다.

교육수준, 직업, 수입에 따른 결혼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학력과 결혼만족도는 대체로 正的 관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최규련, 1984; 이인수·유영주, 1986; 박찬미·서병숙, 1987; 이정연, 1987; 조성옥·신효식, 1987; 최연실·옥선화, 1987; 최규

련, 1988).

남편의 직업에 따른 결혼만족도는 관리, 전문, 사무직이 높게 나타나고(강은령, 1989; 왕석순, 1989) 생산직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최규련, 1988).

한편 수입별로는 대체로 正的 상관으로 나타났다(최규련, 1984; 이인수·유영주, 1986; 조성옥·신효식, 1987; 최규련, 1988). 또한 수입 그 자체보다는 수입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더 중요하다는 보고도 있다(최연실·옥선화, 1987; 이동원, 1988).

자녀의 수와 성별에 따른 결혼만족도를 살펴보면 자녀수가 많아질수록 대체로 결혼만족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윤명희·임정빈, 1985; 송말희·이정우, 1986; 박찬미·서병숙, 1987; 최규련, 1988).

자녀의 성별에 따른 결혼만족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하고 있으나(이미숙, 1985), 도시보다는 농촌에서 가계계승을 위한 남아선호사상이 더 강하게 남아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므로(한국여성개발원, 1990; 김양희, 1991b) 이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

또한 결혼만족에 대한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의 설명력이 약하기 때문에 최근 연구들은 심리적인 주관

적 변수들의 설명력에 관심을 돌리는 경향이 있다. 심리적 변수로는 성역할태도, 가족가치관, 역할상호작용, 의사소통 등을 주로 다루었다.

성역할태도와 결혼만족도와와의 관계는 주부의 성역할태도가 전통적일 때 결혼만족도가 높았으며(박태은, 1983; 기승주, 1988) 남편이 근대적인 태도를 지닌 경우 부부의 결혼만족도가 비교적 높은 경향이 있고, 부인보다 남편이 더 전통적인 경우 부부의 결혼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최규련, 1984; 기승주, 1988).

전통적 가족가치관은 결혼만족과 負的(한남제, 1988) 혹은 正的으로 관련되는 것으로 보고되거나(김명자, 1985),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연령이 높은 층은 전통적 가족가치관을 통하여 그리고 연령이 낮은 층은 우애성을 통하여 각각 결혼의 질이 높아진다는 보고도 있다(이동원, 1988).

역할인지, 역할일치, 역할평가, 역할긴장 등의 변인과 결혼만족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애정적 역할을 높게 인지하는 경우 만족도는 높으나 자녀교육의 역할이나 경제적 역할을 높게 인지하는 경우 만족도가 낮다고 보고되었다(이동원, 1988). 역할일치와 역할평가는 결혼만족과 正的으로 관련되고(이정연, 1987; 최규련, 1988) 역할긴장은 負的相關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임정빈·정혜정, 1986; 이정연, 1987).

부부간 의사소통과 결혼만족과의 관계에 관해서는 대부분의 연구들이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부부간의 의사소통 효율도와 이해도가 높을수록, 의견대립시 대화로서 해결하는 경우에, 부부 함께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에, 의사소통 유형이 기능적인 친숙형, 의견형일 때, 언어적 표현이 개방적이며 개방의 정도가 부부 동일할 때, 부부간에 유사한 양의 감정이 교환될 때, 의사소통 불안 의식이 낮을 때에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송말희·이정우, 1986; 전길양·김태현, 1988; 김순옥, 1989; 이정순·박성연, 1991).

이제까지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중심으로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성별로는 남성이, 연령 및 결혼지속년수별로는 결혼

지속년수가 짧을수록, 교육수준과 수입이 높을수록, 자녀수가 적을수록 대체로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자녀의 성별에 의한 결혼만족도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으나 연구가 부족하므로 추후 연구가 요망된다.

또한 심리적 변수로는 성역할태도, 가족가치관, 역할상호작용, 의사소통을 주로 다루었는데 이러한 연구들은 대체로 부부관계에 관련된 측면만을 본 경향이 있다. 전반적으로 사회인구학적 변인보다는 심리적 변인의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대한가정학회편, 1990). 이러한 결과를 볼 때 결혼만족은 객관적 요소에 의해서 보다는 주관적 요소에 의해서 더 크게 영향을 받는 듯하다.

2) 배우자역할평가와 결혼만족도

役割理論에는 상징적 상호작용론과 구조기능론에 바탕을 두고, 개인들 내부의 象徴的 過程들과 그것의 결과인 役割遂行을 規定하는 地位의 綱들과 이에 따른 기대들의 구조를 분석하는 이론이 있다.

이러한 역할이론에 입각하여 知覺된 역할일치 및 역할평가 개념이 결혼만족도 연구에서 적용되고 있다. 최규련(1988)은 배우자역할평가, 자기 역할평가 그리고 역할일치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독립적 영향력의 크기를 도시부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배우자역할평가가 부인의 결혼만족도를 설명하는데 가장 영향력이 있고, 남편의 경우는 지각된 역할일치도라고 보고 했다. 또한 도시주부를 대상으로 연구한 이정연(1987)도 배우자역할평가가 가장 영향력이 큰 변인이라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정연과 최규련의 연구에서 부부간의 역할일치도를 부부간의 실제 응답차에 근거하지 않고, 상호간에 역할기대가 일치된다고 주관적으로 지각한 정도를 측정하였다. 따라서 최규련의 연구에서 부부간의 역할일치도와 배우자 역할수행 평가간의 상관성이 높은 관련성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²⁾ 하고 있다. 결혼생활 자체가 부부사이의 상호작용 과정이므로 夫婦가 자기 역할들을 수행함에 있어 상호간에 역할기대를 가지며 또한 역할기대와 역할수행간의 일치여부를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역할평가와 같은 심리적 과정을 거치게 된다. 역할

수행에 대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판단의 결과는 상호의존적 관계에 있는 부부에게 만족이나 불만족을 느끼게 하고, 이러한 역할평가는 대상에 따라 배우자의 역할수행에 대한 평가와 자신의 역할수행에 대한 평가로 구분되어 측정할 수 있다. 또한 자기역할평가는 영향력이 적은 것으로 밝혀진 반면에(최규련, 1988), 배우자역할평가가 가장 영향력있는 변수로 밝혀졌다(이정연, 1987; 최규련, 1988). 최규련은 도시부부의 결혼만족도를 설명하는 변인을 회귀분석한 결과 사회인구학적 변인보다는 역할변인의 영향력이 크고, 도구적 역할보다는 특히 애정 및 성, 정서적 지지 역할이 가장 영향력있는 변인이라고 보고하였으나 과연 농촌의 경우는 어떠한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앞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이제까지 결혼만족도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성역할태도, 가족가치관, 의사소통, 권력구조 등 夫婦에 관련된 측면만을 살핀 경우가 많고(이미숙, 1990), 부모-자녀와 관련된 견지에서 결혼만족을 본 연구가 별로 없다. 우리나라 가족은 부부중심의 서구가족과 달리 여전히 전통적 부계중심의 혈연의식이 강하게 남아 있어서 부모자녀관계가 중시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효숙, 1988). 특히 우리 나라 농촌 여성들은 부계제와 시가우선의 전통적 가치지향을 유지하고 있다는 보고(박혜인, 1989) 및 우리 나라의 핵가족은 주거장소만 분리된 분거일 뿐 아직도 전통적 직계가족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연구결과(한유상, 1984)와 자녀관계와 시가관계가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이정연, 1987)가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볼 때 부부관계에 관련된 측면만으로 제한하여 결혼만족을 살피는 것은 결혼생활의 다양한 상호작용의 역동성을 드러내는데 한계가 있으리라 예상된다. 특히 전통성이 강하게 남아 있는 농촌부부관계는 더욱 그러할 것으로 사료된다.

뿐만아니라 우리나라 가족도 도구적 역할을 중시

하는 혈연중심의 제도적 가족에서 부부사이의 애정과 정서적 지지를 중시하는 부부중심가족으로 변화하는 과도기이므로 이에 따라 부부관계의 특성에도 변화가 야기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 속에서 남편과 부인은 서로의 역할을 기대·평가함에 있어 변화의 속도와 정도를 달리 하고 있다. 예를들면 여성의 성역할 태도가 남성보다 근대화되어 있고(최규련, 1984; 이형실·옥선화, 1985; 이성희·김태현, 1989) 여성의 가족주의 가치관이 남성보다 약화된 현실(이동원, 1988; 옥선화, 1989)에 비추어 보아도 남편과 부인의 역할에 대한 기대차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개인의 지각과 인지가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앞에서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된 부부간의 심리적 측면의 하나인 性的 조화는 성적 역할로, 효율적인 의사소통은 정서적 지지 역할로 대체할 수 있다고 보고, 가치관과 성역할 태도도 가정내 배우자역할평가에 일부 반영되어 나타나리라 예측되므로 역할이론을 적용하여 농촌부부의 결혼만족도를 파악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여겨진다.

기존의 결혼만족도 연구가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역할변인을 모두 독립변수로 보았기 때문에 이들 변수들과 결혼만족도와와의 관계에 대해 체계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우나 성별, 연령 및 결혼지속년수, 교육수준, 수입과 같은 사회인구학적 변인은 결혼만족도에 독립적인 영향을 미친다기 보다는 배우자역할평가와 같은 심리적 변인과 상호관련성을 맺고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촌부부를 대상으로 개인의 주관적 定義와 知覺을 중시하는 역할이론의 입장에서 배우자에 대한 주관적 역할평가 개념을 매개변인으로 하고 사회인구학적 요인을 포함시켜서 결혼만족도와와의 관계를 체계적 인과모형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또한 부부를 모두 연구한 것보다는 주로 부인만을 대상으로 본 선행연구가 많다고 하므로(이미숙,

1) 이미숙(1990). 한국에서의 결혼만족 연구에 대한 고찰 및 평가 -1968~1990.6까지의 국내 연구를 중심으로-. 57.에서 최규련(1988)의 연구 중 부부간의 역할일치도와 배우자 역할수행 평가간의 상관인 $r=.90$ 의 높은 관련성을 보이고 있어 두 개념이 중복측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함.

1990) 본 연구에서는 부부를 대상으로 동일한 결혼에 대한 부인과 남편의 결혼만족도의 차이가 있는지 밝혀 보고자 한다.

Ⅲ. 研究問題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1) 농촌부부의 배우자역할평가는 어떤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 2) 농촌부부의 결혼만족도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연령, 결혼지속년수, 가족주기, 교육수준, 수입, 직업, 자녀수, 아들有無)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 3) 농촌부부의 배우자역할평가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연령, 결혼지속년수, 가족주기, 교육수준, 수입, 직업, 자녀수, 아들有無)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 4) 농촌부부의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각 영역별 배우자역할평가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독립적인 영향력은 어느 정도이며 인과관계는 어떠한가?

이상의 연구문제를 토대로 설정한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Ⅳ. 研究方法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가

있으며 현재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농촌부부를 대상으로 임의표집하였다. 자녀가 있는 부부를 대상으로 해야만 본 연구에서 의도한 부모자녀관계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밝힐 수 있기 때문이다.

예비조사는 1992년 7월 19일 부터 7월 25일 까지 경기도 화성군에 거주하는 부부 30 쌍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이용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질문지를 수정 보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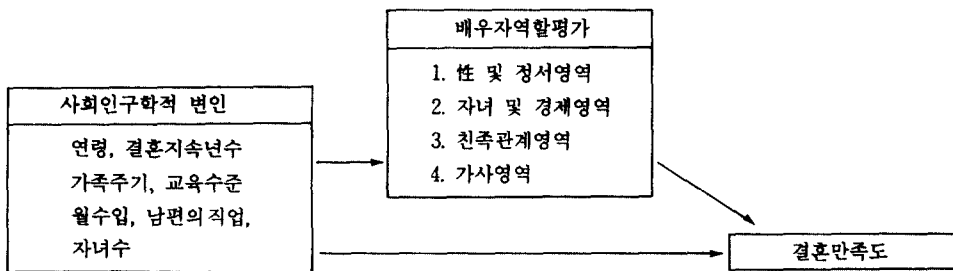
본조사는 1992년 8월 1일 부터 9월 10일까지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를 통해 실시하였다. 표집지역은 지역적 편포를 방지하기 위해 강원도 정선군, 경기도 화성군, 충북 영동군, 전북 정읍군, 전남 해남군, 경북 안동군, 경남 밀양군, 제주도 남제주군에 거주하는 부부 60쌍씩 총480쌍을 표집하였다.

배부된 질문지는 총 480쌍(960부)이었고 이 중 458쌍(916부)이 회수되었으며 부실기재된 것을 제외시키고 총 435쌍(870부)을 분석자료로 이용하였다.

2. 변인들의 정의 및 측정

1) 결혼만족도

현재의 결혼생활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감정과 태도로 定義한다. 본 연구와 같이 역할개념을 독립변인으로 채택하는 경우 결혼만족척도에 이 개념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런 견지에서 48개 문항으로 구성된 로쉬와 그의 동료들(Roach et al., 1981)의 결혼만족척도를 토대로 하여, 최규련(1988)이 축소된 형태로 재구성한 12문항의 결혼만



〈그림 1〉 가설적 인과모형

족도척도를 채택하였다. 최규련의 연구결과 그척도의 문항변별도가 원래 척도의 변별도와 거의 일치하고, 신뢰도 및 타당도가 높은 것으로 판명되어 이를 그대로 이용하였다.

본 척도는 5단계 리커트형 척도이며, 肯定的 態度로 記述된 6개의 문항과 否定的 態度로 記述된 6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점수산출은 긍정적인 태도의 문항은 "매우 그렇다"에 5점을 부여하고, 부정적 태도의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 5점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각 문항점수를 계산하여 이를 합계, 平均한 평균점수로 산출하였다. 점수가 많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내적일관성방법을 통한 신뢰도로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한 결과 부인은 .92, 남편은 .93으로 높은 신뢰도를 보여 줬다.

2) 배우자역할평가

배우자의 특정한 역할수행에 대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판단을 하는 것으로 定義한다.

부부역할은 이론적 배경에 제시된 부부역할영역을 토대로 이미숙(1979), 옥선화(1980), 최규련(1988), 유영주(1990)의 역할분류와 관련연구를 참고하여 역할내용을 선정하고 배우자역할평가에 관한 24개의 문항을 작성하였다.

본 척도는 5단계 리커트형 척도이며, 점수산출은 배우자역할평가를 요인분석한 후 각 하위요인별로 각 문항점수를 합계, 平均한 평균점수로 산출하였다. 점수가 많을수록 배우자역할평가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3) 사회인구학적 변인

연령, 결혼지속년수, 가족주기, 교육수준, 직업, 수입, 자녀수, 자녀의 성별, 종교일치여부 및 심도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남편과 부인이 공통되는 항목은 부인에게만 질문하였다.

V. 研究結果 및 解釋

1. 조사대상자의 성격

먼저 본 연구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결혼만족도와 배우자역할평가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에 나타난 바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령은 부인과 남편 모두 40대가 가장 많고 결혼지속년수는 16-20년(43.4%)이 가장 많았다. 이러한 분포는 본 연구에 적합한 대상으로 초·중·고에 재학중인 자녀를 가진 부부를 선정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교육수준은 대체로 낮은 편이며 특히 부인이 남편보다 낮았다. 직업은 부인의 경우 대다수가 비취업주부이고(87.1%), 남편의 경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직업은 농업(56.8%)이다. 이는 본 연구가 농촌부부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월수입은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고, 자녀수는 3명(33.1%)이 가장 많았다.

2) 결혼만족도의 일반적 경향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부인의 결혼만족도는 평균 3.19(표준편차 0.64), 남편의 결혼만족도는 평균 3.51(표준편차 0.63)로서 부부 각각의 결혼만족도가 중정도로 나타났으며, 남편이 부인보다 결혼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았다($P<.001$). 이는 선행연구 결과(양현아, 1986; 이인수·유영주, 1986; 조성옥·신효식, 1987; 최규련, 1988; 이동원, 1988)와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부인과 남편의 결혼만족도는 正的相關($r=.58, P<.001$)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일 부부쌍의 결혼만족도는 서로 正的 相關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3) 배우자역할평가의 일반적 경향

배우자역할평가의 영역별 경향을 <표 4>에서 살펴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 435)

배경 변수	부인		남편		배경 변수	부인·남편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연령	39세 이하	161	37.0	58	13.3	결혼 10년 이하	26	6.0	
	40~49세	242	55.6	293	67.4	지속 11~15년	83	19.1	
	50세 이상	32	7.4	84	19.3	년수 16~20년	189	43.4	
교육 수준	국졸 이하	183	42.1	111	25.5	21~25년	92	21.1	
	중졸	152	34.9	130	29.9	25년 이상	45	10.3	
	고졸	69	15.9	127	29.2	자녀수	2명 이하	105	24.1
	전문대졸	12	2.8	16	3.7		3명	144	33.1
대졸 이상	19	4.4	51	11.7	4명		116	26.7	
					5명 이상		70	16.1	
직업	사무직	22	5.0	78	17.9	가족 형태	핵가족	352	80.9
	상업·서비스직	13	3.0	48	11.0	확대가족	83	19.1	
	생산직	18	4.1	61	14.0	월수입	49만원이하	71	16.3
	농업	3	0.7	247	56.8		50~69만원	93	21.4
	주부(무직)	379	87.1	1	2.2		70~89만원	86	19.8
					90~109만원		85	19.5	
					110~129만원		42	9.7	
종교	기독교	83	19.1	54	12.4	130~149만원	20	4.6	
	불교	182	41.8	164	37.7	150만원이상	38	8.7	
	천주교	19	4.4	12	2.8				
	무종교	151	34.7	205	47.1				

〈표 3〉 결혼만족도의 일반적 경향 (N=435)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차	자유도	paired-t
부인	3.19	.64	-.32	434	-11.60***
남편	3.51	.63			

*** P<.001

보면 전체배우자역할평가 점수는 남편(평균 3.41)이 부인(평균 3.02)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1). 이는 부인에 비해서 남편이 부인의 역할수행을 보다 높이 평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4개의 하위역할영역 모두 남편이 부인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001).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부인과 남편 공통적으로 자녀관계 및 경제영역의 역할은 잘한다고 평가했으며(부인: 3.57, 남편: 3.68), 성 및 정서적 영역의 역할은 잘못한다고 평가한 것(부인: 2.85, 남편: 2.98)을 알 수 있다. 이는

과업지향적인 일은 중시되면서도 성 및 정서적 역할에 대한 역할수행은 기대에 비해 실제 역할수행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 듯하다. 특히 가사영역과 친족관계영역에서는 남편과 부인의 평균점수 차가 많이 나타났다. 이와같이 남편은 부인이 가사역할을 잘한다고 평가했으나, 부인은 남편의 가사역할 수행을 못한다고 평가한 것을 볼 때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도가 낮고 가사역할수행은 주로 부인이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남편의 가사노동분담이 저조해서 가사노동이 부인에게 집중되어 있고, 특히 농촌

〈표 4〉 배우자역할평가의 영역별 경향 (N=435)

역 할 영 역	부 인		남 편		비 고 paired-t
	평 균	표준편차	평 균	표준편차	
性 및 정서적 지지영역	2.85	.67	2.98	.64	-4.50***
자녀관계 및 경제영역	3.57	.64	3.68	.57	-3.38***
친족관계영역	2.89	.76	3.43	.69	-13.35***
가사영역	2.42	.77	3.72	.71	-27.29***
전체 배우자역할평가	3.02	.56	3.41	.50	paired-t -14.51***

*** P<.001

지역의 남편들이 도시지역보다 가사참여율이 낮다는 연구(김양희, 1991b; 한국여성개발원, 1990)와 관련된 것으로 여겨진다.

친족관계영역에서도 남편은 부인의 시댁에 대한 역할수행을 높게 평가한 반면에 부인은 남편의 처가댁에 대한 역할수행도를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였는데 이는 시댁에 대한 부인의 도리는 규범적으로 강하게 요구되는 반면에 처가댁에 대한 역할수행은 그러하지 않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또한 부인과 남편의 배우자역할평가는 正的相關($r=.44, P<.001$)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일 부부쌍의 배우자역할평가간에는 서로 正的 관련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2. 배우자역할평가의 요인분석

〈연구문제 1〉 우리나라 농촌부부의 배우자역할평가는 어떤 요인(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요인분석한 결과는 〈표 5-1〉과 〈표 5-2〉에 나타난 바와 같다.

부인과 남편의 배우자역할평가를 Scree test 한 결과 이론적으로 4요인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명되어 주성분분석과 직교회전(Varimax)방법에 의하여 요인분석한 결과이다. 〈표 5-1〉부인의 배우자역할평가에 대한 요인행렬표를 보면 4개 요인을 가지고 전체변량의 83.27%를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아울러 〈표 5-2〉남편의 배우자역할평가에 대한 요인행렬표를 보면 4개 요인을 가지고 전체변량의 87.13%를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문지의 신뢰도는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한 결과 부인의 전체 배우자역할평가는 0.92의 높은 신뢰도를 나타냈으며, 4개의 하위요인의 신뢰도는 각각 제 1요인이 0.89, 제 2요인이 0.83, 제 3요인은 0.74, 제 4요인은 0.78 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편의 전체 배우자역할평가는 0.91의 높은 신뢰도를 나타냈으며, 4개의 하위요인의 신뢰도는 각각 제 1요인이 0.91, 제 2요인이 0.80, 제 3요인은 0.77, 제 4요인은 0.75 로 나타났다.

부인과 남편의 第 1 要因을 性 및 정서적 지지, 第 2 要因은 자녀 및 경제, 부인의 第 3 要因과 남편의 第 4 要因을 가사, 부인의 第 4 要因과 남편의 第 3 要因을 친족관계로 命名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 농촌부부의 배우자역할평가는 4개 영역으로 구성되었으므로 이 척도의 각 요인을 하위영역으로 간주하였다.

이 결과를 도시부부를 대상으로 배우자역할평가를 요인분석한 최규련(1988)의 연구결과와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도시부인의 배우자역할평가 요인은 사회정서적 영역, 자녀관계 및 오락영역, 경제 및 직업영역, 가사영역 등 4요인으로 밝혀지고, 도시남편의 배우자역할평가 요인은 사회정서적 영역, 자녀관계 및 가사영역, 경제영역 등 3요인으로 추출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 가운데 도시부부의 사회정서적영역과 농촌부부의 性 및 정서적 지지영역은 같은 역할로 구성되어 있다. 즉 도시부부와 농촌부부의 경우 모두 애정 및 性的 역할과 정서적 지지 및 동반적 역할, 대화상대자로서의 역할이 동일요인으로 묶인 것이다. 이는 부부의 성생활에 대한 만족과 성생활에 대한 개방적 대화, 애정적, 동반적 역할, 대화상대자로서의 역할이 부부간의 정서적 친밀감과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데 상호관련되어 있는 결과인 듯하다.

한편 도시부인의 경우 자녀관계와 오락영역이 동

일요인이고, 도시남편의 경우는 자녀관계와 가사영역이 동일요인인데, 농촌부부의 경우는 도시부부와 달리 자녀관계와 경제적 역할이 동일요인으로 추출되었다. 이는 농촌의 경우 도시에 비해 연간 소비지출 중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더 높고, 공교육비의 부담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보고(김양희, 1991a)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소득자로서의 역할이 높ی 평가되면 자녀의 교육비 지출이 보다 용이할 것이므로 자녀교육을 잘 한다고 평가하고, 특히 “농촌주인이 여러 욕구 중 자녀교육에 높은 가치를 두고 있다”(한국여성개발원, 1990 : 79-80)는 보고에

(표 5-1) 부인의 배우자역할평가에 대한 요인행렬표 (부인: N=435)

문 항 번 호 및 내 용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h ²
22 화목이나 명랑한 분위기를 위해 노력	.68	.12	.29	.14	.58
21 애정을 두텁게 하기 위한 노력-전화, 외출-	.66	.15	.25	.21	.57
15 애정전달행동-등을 두드려줌, 포옹, 미소-	.65	.31	.25	.17	.61
16 대화와 의논상대어 주기	.65	.28	.22	.22	.59
9 부부간의 성생활에 대한 대화분위기 조성	.61	.37	.07	.06	.52
4 신뢰감·안정감·편안함 느끼게 해 주기	.58	.35	.18	.19	.52
10 가정일에 대한 노고 인정	.57	.27	.29	.19	.52
3 배우자의 성적 만족을 위해 노력	.50	.35	.07	.15	.40
13 저축에 힘쓰기	.21	.65	.02	.21	.51
2 자녀의 학업지도	.15	.60	.18	.08	.42
20 자녀의 일상생활 보살피기	.22	.59	.33	.11	.52
14 자녀의 의논상대	.38	.58	.24	.05	.52
7 계획적 지출	.27	.57	.03	.12	.41
8 자녀의 생활습관지도	.19	.54	.28	.02	.40
19 직업에 충실하기	.07	.52	.03	.16	.30
1 돈 벌어 오기	.20	.49	.09	.22	.34
11 빨래·옷정리·다림질 협조	.26	.01	.67	.13	.54
5 음식준비나 설거지에 협조	.32	.04	.63	.06	.51
17 집안뽀침소나 정돈하기	.11	.16	.60	.24	.46
23 집안손질(집수리하기, 화초에 물주기)	.16	.23	.46	.22	.34
12 처가댁 행사에 참석하기	.06	.26	.17	.70	.60
18 처가댁 친척과 관계를 좋게하기 위해 노력	.14	.24	.13	.69	.57
24 친정부모님 찾아뵙기·문안드리기	.31	.10	.19	.60	.50
6 처가에 돈 드리기	.33	.07	.16	.50	.39
아이겐(eigen) 값	8.18	1.48	1.14	0.86	11.66
설 명 변 량 (%)	58.42	10.60	8.13	6.12	83.27
누 적 설 명 변 량 (%)	58.42	69.02	77.15	83.27	

(표 5-2) 남편의 배우자역할평가에 대한 요인행렬표 (남편: N=435)

문항번호 및 내용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h ²
16 대화와 의논상대되어 주기	.74	.27	.15	.15	.66
15 애정전달행동-등을 두드려줌,포옹,미소-	.74	.28	.06	.18	.66
3 배우자의 성적 만족을 위해 노력	.68	.29	.14	.04	.57
9 부부간의 성생활에 대한 대화분위기 조성	.68	.33	.14	.07	.60
22 화목이나 명량한 분위기를 위해 노력	.68	.13	.16	.14	.52
21 애정을 두텁게 하기 위한 노력-전화,외출-	.68	.19	.21	.17	.56
4 신뢰감·안정감·편안함 느끼게 해 주기	.67	.21	.23	.11	.56
10 직업생활에 대한 노고 인정하고 존중	.56	.25	.21	.23	.48
20 자녀의 일상생활 보살피기	.26	.62	.09	.23	.51
8 자녀의 생활습관지도	.28	.60	.17	.08	.47
2 자녀의 학업지도	.19	.59	.09	.01	.39
14 자녀의 의논상대	.38	.56	.08	.16	.50
19 합리적인 소비생활	.14	.56	.12	.09	.36
7 계획적 지출	.25	.54	.19	.17	.42
13 저축에 힘쓰기	.23	.48	.26	.19	.39
1 소득활동(농사일 돕기, 직업·부업갖기)	.08	.29	.20	.24	.20
12 시댁 행사에 협조하기	.16	.13	.65	.17	.49
18 시댁 친척과 관계를 좋게하기 위해 노력	.28	.13	.62	.15	.50
24 시부모님 찾아뵙기·문안드리기	.25	.09	.61	.09	.45
6 시댁에 돈 드리기	.16	.15	.56	.24	.43
11 빨래·옷손질·옷정리 하기	.13	.14	.12	.70	.54
17 집안뉘척소나 정돈하기	.08	.13	.21	.69	.54
5 음식만들기 및 차리기	.13	.12	.15	.66	.49
23 집안손질(집수리, 집안꾸미기)	.26	.13	.19	.41	.30
아이겐(eigen) 값	7.96	1.51	1.09	0.88	11.44
설명변량(%)	60.64	11.52	8.30	6.67	87.13
누적 설명변량(%)	60.64	72.15	80.45	87.13	

비추어 볼 때 수입을 자녀교육비로 지출하면 가계관리자로서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으로 추론된다. 아울러 도시는 직장가정이 분리되는데 반하여 농촌은 직장과 가정이 분리되지 않고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해서 도시부부와는 달리 경제적 역할과 부모로서의 역할이 분리되지 않은 것 같다.

도시부부의 경우와 또 다른 차이점은 친족관계영역이다. 즉 도시부인의 경우 처가식구와 원만하게 지내기가 사회정서적 영역에 포함되고, 도시남편의 경

우 시댁식구와 원만하게 지내기가 자녀관계 및 가사영역과 동일영역으로 보고되었는데 농촌부부의 경우는 친족관계영역이 독립된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이는 농촌의 경우 도시에 비해 친족관계유지역할이 더 중요시되고 있기 때문인 듯하나 이에 대한 후속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3. 사회인구학적 변인별 결혼만족도

<연구문제 2> 농촌부부의 결혼만족도는 사회인구

학적 변인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한 결과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으며 이를 변인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6) 사회인구학적 변인별 결혼만족도 (N=435)

사회인구학적 변인(빈도:부인, 남편)		부인의 결혼만족도		남편의 결혼만족도	
연령	39세 이하 (161, 58)	3.34	A	3.75	A
	40~45세 (189, 179)	3.12	B	3.49	B
	46세 이상 (85, 198)	3.05	B	3.47	B
	F값 및 유의도	7.44***		4.85**	
결혼년수	15년 이하 (109)	3.34	A	3.60	A
	16~20년 (189)	3.15	B	3.54	
	21년 이상 (137)	3.11	B	3.40	B
	F값 및 유의도	4.35*		3.27*	
가족구성	첫자녀국민학교 (36)	3.70	A	3.87	A
	첫자녀중·고·대 (288)	3.17	B	3.51	B
	첫자녀독립기 (111)	3.07	B	3.40	B
	F값 및 유의도	14.41***		7.99***	
교육수준	국졸 이하 (183, 111)	3.06	A	3.38	A
	중졸 (152, 130)	3.16	A	3.50	A
	고졸 (69, 127)	3.35	AB	3.50	A
	전문대졸 이상 (31, 67)	3.70	B	3.78	B
F값 및 유의도	11.44***		6.05***		
월수입	49만원 이하 (71)	2.82	A	3.20	A
	50~69만원 (93)	3.11	AB	3.44	AB
	70~89만원 (86)	3.25	AB	3.55	B
	90~109만원 (85)	3.33	B	3.53	AB
	110만원 이상 (100)	3.35	B	3.73	B
	F값 및 유의도	9.49***		8.30***	
남편의 직업	사무직 (78)	3.46	A	3.71	A
	상업·서비스직 (48)	3.36	A	3.66	A
	생산직 (61)	3.15	B	3.49	
	농업 (247)	3.08	B	3.42	B
F값 및 유의도	8.65***		5.24**		
자녀수	2명 이하 (105)	3.40	A	3.66	A
	3명 (144)	3.17	B	3.51	
	4명 (116)	3.13	B	3.46	B
	5명 이상	2.99	B	3.37	B
F값 및 유의도	6.46***		3.26*		
아들 유/무	아들 無 (42)	3.12		3.49	
	아들 有 (393)	3.19		3.51	
F값 및 유의도	-.71		-.19		

주) 같은 문자로 표시된 집단은 차이가 없음 * P<.05 ** P<.01 *** P<.001

교육수준, 월수입, 남편의 직업, 자녀수 등과 같은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부부 모두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즉 연령이 낮을수록, 결혼지속년수와 가족주기가 초기일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월수입이 많을수록, 남편의 직업적 지위가 높을수록, 자녀수가 적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았다. 이는 선행연구결과(윤명희·임정빈, 1985; 송말희·이정우, 1986; 이인수·유영주, 1986; 박찬미·서병숙, 1987; 이정연, 1987; 조성욱·신희식, 1987; 최연실·옥선화, 1987; 최규련, 1988; Nicolas et al., 1991)와 대체로 일치하는 것이다.

4. 사회인구학적 변인별 배우자역할평가

〈연구문제 3〉 농촌부부의 배우자역할평가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한 결과가 <표 7-1>과 <표 7-2>에 나타난 바와 같으며 이중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인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령 및 결혼지속년수, 가족주기에 따라 부부 모두 전체배우자역할평가와 性 및 정서적지지영역에 대한 배우자역할평가가 유의한 차이를 보여서 연령 및 결혼지속년수, 가족주기가 증가할수록 전체배우자역할평가와 性 및 정서적지지영역에 대한 배우자역할평가가 부정적인 경향을 보였다. 이는 최규련(1988)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횡단적 연구 결과이므로 종단적 접근법에 의해 더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수준에 따른 배우자역할평가는 부인의 경우, 전체배우자역할평가 및 모든 하위영역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남편의 경우는 전체배우자역할평가와 性 및 정서적 지지영역 그리고 가사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부 모두 性 및 정서적 지지영역 그리고 가사영역 역할수행에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우애적 결혼생활을 지향하고 부부간에 애정적 역할과 대화상대자로서의 역할에 더 가치를 부여하며(이동원, 1988; 최규련, 1988) 또한 부부의 성역할태도가 근대적이어서 부부간에 가족역할이 공유되고 남

편의 가사참여가 증가한다(이성희·김태현, 1989)는 주장과 관련되는 것 같다.

수입에 따라 부부 모두 전체배우자역할평가와 性 및 정서적지지영역에 대한 배우자역할평가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서 수입이 증가할수록 높은 평가를 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이는 최규련(1988)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이다.

남편의 직업에 따라 부부 모두 전체배우자역할평가와 性 및 정서적지지영역, 자녀 및 경제영역, 가사영역에 대한 배우자역할평가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서 사무직이 가장 높고 상업·서비스직, 생산직, 농업의 順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이는 선행연구(최규련, 1988)와 대체로 일치하는 것이다.

자녀수에 따라 부부 모두 전체배우자역할평가와 性 및 정서적지지영역에 대한 배우자역할평가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서 자녀수가 2명이하인 집단과 그 보다 많은 집단 사이에 집단간 차이가 발견되었다. 이는 자녀수가 많아질수록 부모의 양육책임이 증가하기 때문에 부부관계보다는 부모자녀관계가 중심이 되는 면과 함께 자녀수가 많은 부부는 대체로 연령이 더 높은 편이기 때문에 자녀수라는 변인의 단일영향이라기 보다는 연령과의 상호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아得有無에 의해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위의 결과를 볼 때 아得有無를 제외한 연령, 결혼지속년수, 가족주기, 교육수준, 월수입, 남편의 직업, 자녀수 등과 같은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부부 모두 전체배우자역할평가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고 각 역할영역별로는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5. 결혼만족도에 대한 관련변인의 영향력 및 인과모형

〈연구문제 4〉 농촌부부의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각 영역별 배우자역할평가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독립적인 영향력은 어느 정도이며 인과관계는 어떠한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부인과 남편별로 각각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독립변인간의 다중공선성의 문

(표 7-1) 사회인구학적 변인별 부인의 배우자역할평가 (N=435)

사회인구학적 변인 (빈도)		성 및 정서 영역	자녀 및 경제영역	가사 영역	친족관계 영역	전체 배우자 역할평가
연령	39세 이하 (161)	3.00 A	3.60	2.48	2.96	3.11 A
	40~45세 (189)	2.78 B	3.55	2.37	2.81	2.99 B
	46세 이상 (85)	2.71 B	3.53	2.45	2.92	2.95 B
	F값 및 유의도	7.23***	1.12	2.01	2.45*	4.77**
결혼년수	15년 이하 (109)	3.03 A	3.59	2.58 A	2.94	3.13 A
	16~20년 (189)	2.80 B	3.58	2.30 B	2.84	2.98 B
	21년 이상 (137)	2.77 B	3.54	2.47 A	2.91	3.00
	F값 및 유의도	5.67**	.23	5.14**	.64	2.55*
가족구성	첫자녀국민학교 (36)	3.39 A	3.81 A	2.86 A	3.28 A	3.42 A
	첫자녀중·고·대 (288)	2.82 B	3.58 B	2.37 B	2.82 B	3.00 B
	첫자녀독립기 (111)	2.74 B	3.46 B	2.41 B	2.94 B	2.96 B
	F값 및 유의도	14.59***	4.20*	6.69**	6.40**	10.83***
교육수준	국졸 이하 (183)	2.72	3.47 A	2.33 A	2.88 A	2.93 A
	중졸 (152)	2.80	3.58	2.37 AB	2.84 A	2.99 AB
	고졸 (69)	3.02	3.71 B	2.58 AB	2.82 A	3.14 AB
	전문대졸 이상 (31)	3.45	3.77 B	2.94 B	3.29 B	3.45 B
	F값 및 유의도	13.49***	3.58*	7.26***	3.29*	9.34***
월수입	49만원 이하 (71)	2.47 A	3.26 A	2.29	2.67 A	2.73 A
	50~69만원 (93)	2.75 AB	3.51 B	2.47	2.88	2.98 AB
	70~89만원 (86)	3.96 B	3.54 B	2.36	2.96 B	3.05 AB
	90~109만원 (85)	3.01 B	3.71 B	2.54	2.97 B	3.16 B
	110만원 이상 (100)	3.98 B	3.65 B	2.44	2.92 B	3.13 AB
	F값 및 유의도	9.49***	5.65***	1.34	2.05*	9.49**
남편의 직업	사무직 (78)	3.14 A	3.70 A	2.66 A	2.88	3.20 A
	상업·서비스직 (48)	3.04 A	3.76 A	2.52	3.09	3.20 A
	생산직 (61)	2.76 B	3.67 A	2.31 B	2.79	3.99 AB
	농업 (247)	2.74 B	3.47 B	2.36 B	2.89	3.94 B
	F값 및 유의도	9.41***	5.06**	3.99**	1.47	6.36***
자녀수	2명 이하 (105)	3.06 A	3.63	2.65 A	3.01	3.17 A
	3명 (144)	2.81 B	3.55	2.34 B	2.79	2.98 B
	4명 (116)	2.79 B	3.59	2.34 B	2.91	3.00 B
	5명 이상 (70)	2.70 B	3.49	2.39 B	2.86	2.94 B
	F값 및 유의도	5.10**	.71	4.12*	1.79	3.50*
아들유무	아들 無 (42)	2.91	3.67	2.47	2.93	3.09
	아들 有 (393)	2.84	3.56	2.42	2.88	3.01
	t값 및 유의도	.66	1.27	.47	.36	.85

주) 같은 문자로 표시된 집단은 차이가 없음 * P<.05 ** P<.01 *** P<.001

〈표 7-2〉 사회인구학적 변인별 남편의 배우자역할평가 (N=435)

사회인구학적 변인 (빈도)		성 및 정서 영역	자녀 및 경제영역	가 사 영역	친족관계 영역	전체 배우자 역할평가
연령	39세 이하 (58)	3.30 A	3.78	3.71	3.61 A	3.60 A
	40~45세 (179)	2.96 B	3.66	3.51	3.39 B	3.39 B
	46세 이상 (198)	2.91 B	3.68	3.72	3.42	3.38 B
	F값 및 유의도	8.67***	1.12	2.01	2.45*	4.77**
결혼년 지수	15년 이하 (109)	3.19 A	3.75	3.83 A	3.50	3.53 A
	16~20년 (189)	2.92 B	3.67	3.72 B	3.41	3.38 B
	21년 이상 (137)	2.90 B	3.66	3.64 B	3.42	3.36 B
	F값 및 유의도	7.82***	.91	2.39*	.60	4.18*
가족 주 기	첫자녀국민학교 (36)	3.44 A	3.87 A	3.89	3.77 A	3.71 A
	첫자녀중·고·대 (288)	2.99 AB	3.69	3.71	3.40 B	3.41 B
	첫자녀독립기 (111)	2.83 B	3.61 B	3.68	3.40 B	3.33 B
	F값 및 유의도	13.07***	3.08*	1.21	4.74**	8.43***
교육 수 준	국졸 이하 (111)	2.85 A	3.64	3.55 A	3.45	3.33 A
	중졸 (130)	2.95 A	3.69	3.85 B	3.36	3.42 A
	고졸 (127)	2.98 A	3.65	3.69	3.41	3.39 A
	전문대졸 이상 (67)	3.27 B	3.77	3.82 B	3.58	3.52 B
	F값 및 유의도	6.61***	.88	4.16**	1.55	4.03**
월 수 입	49만원 이하 (71)	2.65 A	3.60	3.56	3.35	3.23 A
	50~69만원 (93)	2.96 B	3.70	3.66	3.38	3.39 B
	70~89만원 (86)	3.07 B	3.64	3.77	3.43	3.44 B
	90~109만원 (85)	3.06 B	3.68	3.79	3.48	3.46 B
	110만원 이상 (100)	3.10 B	3.78	3.80	3.50	3.51 B
	F값 및 유의도	6.82***	.80	1.71	.80	3.46**
남 편 의 직 업	사무직 (78)	3.21 A	3.81 A	3.79	3.46	3.55 A
	상업·서비스직 (48)	3.25 A	3.76	3.96 A	3.62 A	3.60 A
	생산직 (61)	2.98 B	3.67	3.68	3.29 B	3.38 B
	농업 (247)	2.86 B	3.63 B	3.66 B	3.43	3.35 B
	F값 및 유의도	9.85***	2.34*	2.85*	2.12*	5.97***
자 녀 수	2명 이하 (105)	3.16 A	3.81 A	3.79	3.50	3.54 A
	3명 (144)	2.98 B	3.65 B	3.73	3.39	3.39 B
	4명 (116)	2.88 B	3.69	3.76	3.48	3.40 B
	5명 이상 (70)	2.90 B	3.56 B	3.55	3.34	3.30 B
	F값 및 유의도	4.32**	3.08*	1.76	1.18	3.50*
아 들 有 無	아들 無 (42)	3.11	3.79	3.68	3.37	3.48
	아들 有 (393)	2.97	3.67	3.73	3.44	3.41
	t값 및 유의도	1.36	1.31	-.37	-.63	.84

주) 같은 문자로 표시된 집단은 차이가 없음 * P<.05 ** P<.01 *** P<.001

제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독립변인간에 피어슨 적률상관계수와 분산확대요인(VIF)을 살펴본 결과 분산확대요인이 10보다 작아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들의 직접적인 효과는 배우자역할평가의 하위영역에 대한 요인점수(Factor Score)를 산출하여 요인점수를 이용한 단계별 중다회귀분석으로 보았다.

1)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관련변인의 영향력 및 인과모형

부인의 결혼만족도 인과모형을 구성해 보면 <그림 2-1>과 같다. <그림 2-1>에 따라서 연구문제 4를 검증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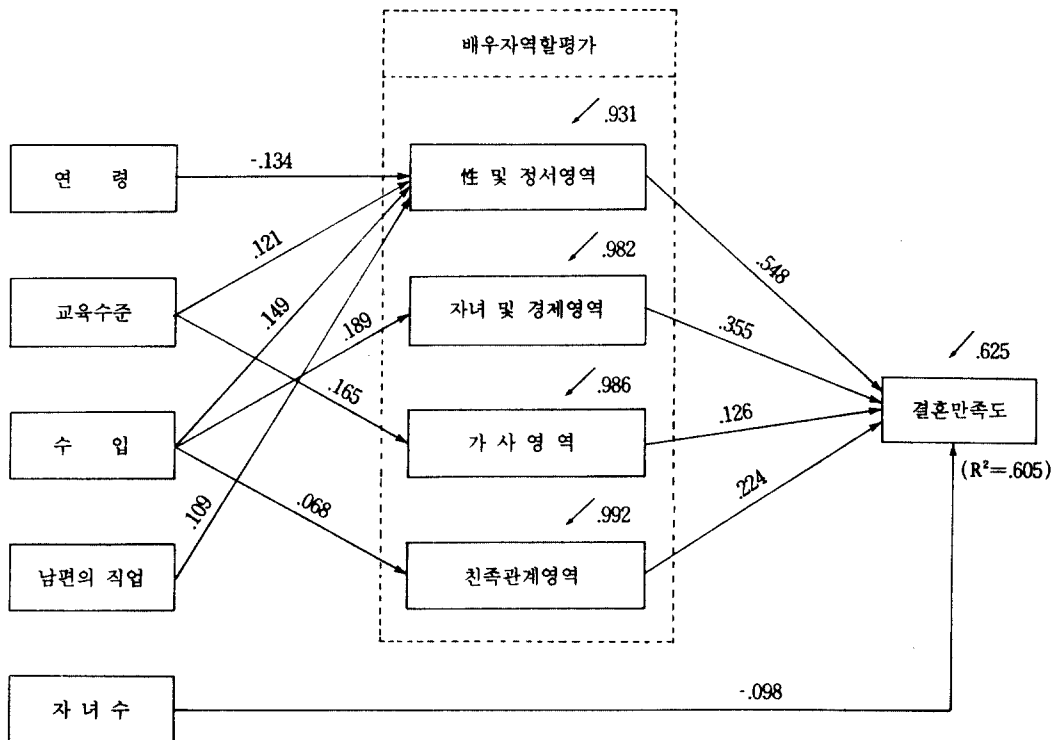
성 및 정서영역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은 연령, 교육수준, 수입, 남편의 직업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은 부적 영향을 미치므로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수입이 많을수록, 남편의 직업이 농업, 생

산직, 상업·서비스직, 사무직의 順으로 남편의 성 및 정서영역에 대한 부인의 배우자역할평가가 높아졌다. 영향력의 크기면에서는 수입($\beta=.149$)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었다.

자녀 및 경제영역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수입이다. 즉, 수입이 많을수록 남편의 자녀 및 경제영역의 역할에 대한 부인의 배우자역할평가가 높았다.

가사영역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교육수준이다. 즉, 부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남편의 가사영역에 대한 부인의 배우자역할평가가 높았다. 이는 부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부의 성역할태도가 근대적이어서 부부간에 가족역할이 공유되고 남편의 가사참여가 증가한다(이성희·김태현, 1989)는 주장과 관련되는 것 같다.

친족관계영역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수입이다. 즉, 수입이 많을수록 남편의 처가대에 대한 역할수행을 부인이 높이 평가했다.



<그림 2-1>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인과모형

또한 性 및 정서영역, 자녀 및 경제영역, 가사영역, 친족관계영역에 대한 배우자역할평가는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변인들, 즉 자녀수와 각 영역별 배우자역할평가의 영향력의 크기를 경로계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性 및 정서영역에 대한 배우자역할평가의 기여도가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beta=.548$). 전체적으로 사회인구학적 변인 및 각 영역별 배우자역할평가에 의한 부인의 결혼만족도 설명력은 60.5%로서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연령은 性 및 정서영역을 통해서, 교육수준은 性 및 정서영역과 가사영역을 매개로 하여, 수입은 性 및 정서영역과 자녀 및 경제영역, 친족관계영역을 통해서, 그리고 남편의 직업은 性 및 정서영역을 통해서 간접효과만을 미치며, 자녀수는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아울러 각 영역별 배우자역할평가는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구체적인 인과관계는 <표 8-1>과 같다.

2)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관련변인의 영향력 및 인과모형

남편의 결혼만족도 인과모형을 구성해 보면 <그림 2-2>와 같다. <그림 2-2>에 따라서 연구문제 4 를 검증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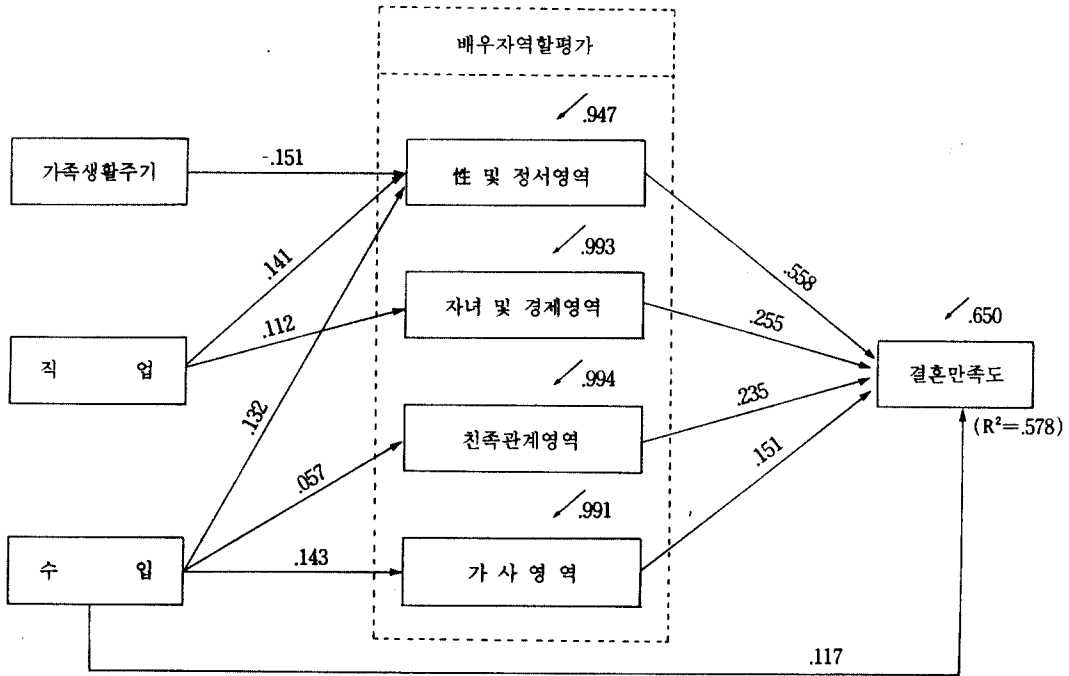
性 및 정서영역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은 가족생활주기, 수입, 직업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생활주기는 부적 영향을 미치므로 첫자녀국민학교, 첫자녀 중·고·대, 첫자녀 독립기의 順으로 부인의 性 및 정서영역에 대한 남편의 배우자역할평가가 낮아지고, 수입이 많을수록, 직업별로는 농업, 생산직, 상업·서비스직, 사무직의 順으로 부인의 性 및 정서영역에 대한 남편의 배우자역할평가가 높아졌다. 이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부부간의 애정표현이나 감정적 친밀감이 감소하는 경향과 젊은 세대일수록 점차 부부간의 性 및 정서적 지지 역할에 더욱 가치를 두는 우애적 부부관계로 변화하는 추세이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또한 수입이 많고 남편의 직업적 지위가 높을수록 경제적으로 안정된 관계로 부인이 가계소득에 직접 보탬을 주는 도구적 활동을 하지 않아도 되므로 부인이 표현적 역할에 더 치중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자녀 및 경제영역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직업이다. 즉, 직업이 농업, 생산직, 상업·서비스직, 사무직의 順으로 부인의 자녀 및 경제영역 역할에 대한 남편의 배우자역할평가가 높아졌다. 이는 남편의 직업적 지위가 높은 부인은 자녀 및 가계관리 역할에

<표 8-1>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각 변인들의 효과

변 인	총효과 A=(D+E)	인 과 적 효 과			비인과적 효과 E=(A-D)
		직접효과 B	간접효과 C	총인과효과 D=(B+C)	
연 령	-.194		-.073	-.073	-.121
교 육 수 준	.259		.087	.087	.172
수 입	.290		.164	.164	.126
남 편 의 직 업	.237		.060	.060	.177
자 녀 수	-.227	-.098		-.098	-.129
性 및 정서영역	.627	.548		.548	.079
자녀 및 경제영역	.421	.355		.355	.066
친 족 관 계 영 역	.274	.224		.224	.050
가 사 영 역	.219	.126		.126	.093

총효과는 피어슨 적률상관계수임



(그림 2-2)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인과모형

치중할 수 있기 때문에 여겨진다.

친족관계영역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수입이다. 즉, 수입이 많을수록 부인의 시대에 대한 역할수행을 남편이 높이 평가했다. 이는 시대과의 친족관계를 유지하는데 경제적 지출이 요구되기 때문으로 추정되며 부인의 경우와 같은 결과이다.

가사영역에 영향을 주는 변인도 수입이다. 즉, 수입이 많을수록 부인의 가사영역에 대한 남편의 배우자역할평가가 높았다. 이는 부인의 가사역할 수행에도 경제적 지출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결과는 부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남편의 가사역할수행을 높이 평가한 부인의 경우와 차이가 있다.

또한 性 및 정서영역, 자녀 및 경제영역, 친족관계영역, 가사영역에 대한 배우자역할평가는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변인들, 즉 수입과 각 영역별 배우자역할평가

의 영향력의 크기를 경로계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性 및 정서영역에 대한 배우자역할평가의 기여도가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beta = .558$). 전체적으로 사회인구학적 변인 및 각 영역별 배우자역할평가에 의한 남편의 결혼만족도 설명력은 57.8%로서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가족생활주기는 性 및 정서영역을 통해서, 직업은 性 및 정서영역과 자녀 및 경제영역을 매개로 간접효과만을 미치며, 수입은 직접효과 뿐만 아니라 性 및 정서영역과 친족관계영역, 가사영역을 매개로 해서 간접적으로도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고 있다. 아울러 각 영역별 배우자역할평가는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각 변인들의 인과관계는 < 표 8-2 >와 같다.

전체적으로 농촌남편의 결혼만족도 인과모형을 농촌부인의 경우와 비교해보면, 유사한 점으로는 농촌

〈표 8-2〉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각 변인들의 효과

변 인	총효과 A=(D+E)	인 과 적 효 과			비인과적 효과 E=(A-D)
		직접효과 B	간접효과 C	총인과효과 D=(B+C)	
가족생활주기	-.185		-.084	-.084	-.101
수 입	.283	.117	.109	.226	.057
직 업	.186		.108	.108	.078
性 및 정서영역	.632	.558		.558	.074
자녀 및 경제영역	.340	.255		.255	.085
친족관계영역	.306	.235		.235	.071
가 사 영 역	.222	.151		.151	.071

총효과는 피어슨 적률상관계수임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性 및 정서영역에 대한 배우자 역할평가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점이다. 이러한 경향은 현대부부에게 치료적, 오락적, 性的 역할이 중요한 역할로 부각되고 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Nye, 1974; 이동원, 1988; 최규련, 1988)와 대체로 일치된 것이다. 또한 한국과 미국의 농촌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생활만족을 조사한 결과 한국과 미국 농촌가정 모두 부부간의 친밀감이 가정생활 만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임정빈(1990)의 연구와도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상이한 점으로는 농촌남편의 결혼만족도 인과모형에서는 농촌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교육수준과 자녀수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반면에 수입이 농촌남편의 결혼만족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인과 달리 남편의 경우는 교육수준보다는 자신의 직업이나 수입이 더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자녀수의 증가는 부인의 결혼만족도에만 직접적인 부적 영향을 미치고, 수입은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남편의 결혼만족도에만 미치는 것을 볼 때 주로 자녀양육의 책임은 부인의 역할로 인식되고 있어서 그 책임을 부인이 보다 많이 떠맡고 있기 때문에 자녀수의 증가가 부인에게 더 큰 육체적, 심리적 부담이 되고 있고, 남편은 소득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더 중시하고 있음으로 인해 이처럼 서로 상이한 결혼만족도 인과모형이 나타난 것으로 여겨진다.

VI. 結 論 및 論 議

본 연구는 농촌부부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토하기 위해 역할이론에 기초한 배우자 역할평가요인을 중심으로 사회인구학적 요인, 배우자 역할평가, 그리고 결혼만족도와의 관계에 관해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은 지역적 편포를 방지하기 위해 전국 8개 道에 소재한 농촌을 선정하여 자녀가 있으며 현재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435쌍의 농촌부부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들과 관련하여 조사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농촌부부의 배우자역할평가를 요인분석한 결과 농촌부부의 배우자역할평가 요인은 4개의 영역으로 추출되어 각각 性 및 정서적 지지 영역, 자녀 및 경제영역, 가사영역, 친족관계영역으로 命名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척도의 각 요인을 하위영역으로 간주하였다.

2. 사회인구학적 변인별 결혼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 연령, 결혼지속년수, 가족주기, 교육수준, 월수입, 직업, 자녀수에 따라 농촌부인과 남편의 결혼만족도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아得有無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3. 사회인구학적 변인별 배우자역할평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아得有無를 제외한 연령, 결혼지속년수,

가족주기, 교육수준, 월수입, 남편의 직업, 자녀수에 따라 농촌부부 양방의 전체배우자역할평가 점수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고 각 영역별 배우자역할평가 점수는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4. 농촌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각 영역별 배우자역할평가의 영향력 및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부인의 경우,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연령은 性 및 정서영역을 통해서, 교육수준은 性 및 정서영역과 가사영역을 매개로, 수입은 性 및 정서영역, 자녀 및 경제영역과 친족관계영역을 통해서, 남편의 직업은 性 및 정서영역을 매개로 간접적 영향을 미치고, 자녀수와 각 영역별 배우자역할평가는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인 중 연령과 자녀수는 부정적인 영향을, 교육수준, 수입, 남편의 직업적 지위 및 각 영역별 배우자역할평가는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농촌남편의 경우,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가족생활주기는 性 및 정서영역을 통해서, 직업은 性 및 정서영역과 자녀 및 경제영역을 매개로 간접적 영향을 주며, 수입은 性 및 정서영역, 친족관계영역, 가사영역을 매개로 간접적 영향 뿐만 아니라 직접적 영향을 주고 아울러 각 영역별 배우자역할평가는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인 중 가족생활주기는 부정적인 영향을, 수입, 직업적 지위 및 각 영역별 배우자역할평가는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농촌부부 양방의 결혼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은 性 및 정서적 지지 영역에 대한 배우자역할평가로 밝혀졌다.

이상의 연구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은 논의를 할 수 있겠다.

첫째로 농촌부부의 배우자역할평가 요인은 4개의 영역으로 추출되었는데 도시부부의 배우자역할평가 요인과 달리 구성되어 있었다. 이는 아마도 도시부부와 농촌부부의 배우자역할평가 요인은 이론적으로 구별해서 보아야 함을 시사하는 것 같다.

둘째로 우리나라 도시부부와 마찬가지로 性 및 정

서적 지지영역에 대한 평가가 농촌부부 양방의 결혼만족도에 가장 영향력있는 변인으로 밝혀진 것은 농촌부부도 제도적 가족에서 우애적 가족으로 변화되고 있는 과도기로 추정된다. 이러한 경향은 현대사회에서 性 및 애정과 정서적 지지자로서의 역할이 어떤 도구적 역할보다 더 중요시되고 있는데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 역할들이 결혼만족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역할영역에 대한 농촌부부 양방의 배우자역할평가가 낮은 것은 정신적으로는 이들 역할을 기대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함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이러한 결과는 농촌부부를 포함한 우리나라 부부가 자녀의 사회화기능 및 경제적 협력기능 수행도는 높으나 性 및 애정과 정서적 지지기능의 수행도는 낮다는 연구(유영주, 1990)와 일치되는 것이다. 이와같은 의식과 행동간의 괴리로 말미암아 역할기대와 수행간에 불일치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개인의 지각과 인지가 결혼만족도와 관련이 되리라 예상된다.

셋째로 남편보다 부인의 결혼만족도가 유의하게 낮았는데 이는 많은 선행연구에서 공통된 결과이다. 이러한 경향은 여성의 가정중심성과 가정내의 역할에서 정체감의 근원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남편에 대한 역할기대 수준이 높는데 원인이 있는 듯하다. 또한 남편은 부인의 시대에 대한 역할수행을 높게 평가한 반면에 부인은 남편의 처가대에 대한 역할수행도를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였는데 이와같은 시가위주의 부계제 가족제도로 말미암아 부인이 결혼생활에서 공평성을 느끼지 못하고 역할갈등을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한편 농촌주부의 농사일 돕기나 소득활동에 대한 남편의 배우자역할평가 점수(평균 3.63)에 비해 농촌남편의 가사일 돕기에 대한 부인의 배우자역할평가점수(평균 2.42)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농사일과 가사일을 함께 해야만 하는 농촌주부의 총노동시간이 농촌남성의 노동시간보다 많다”(한국여성개발원, 1990 : 40-42)는 연구결과를 고려해 볼 때 과중한 노동부담도 영향이 있는 것 같다.

넷째로 결혼만족도 인과모형에서 농촌부인의 경우

는,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월수입이 많을수록, 남편의 직업적 지위가 높을수록 간접적으로, 자녀수가 적을수록 직접적으로 부인의 결혼만족도를 높였다. 농촌남편의 경우는,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가족생활주기가 보다 초기일수록, 직업적 지위가 높을수록 간접적으로, 수입이 많을수록 간접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남편의 결혼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농촌 부인과 남편 양방의 결혼만족도에 사회인구학적 변인인 객관적 요인보다 심리적 주관적 요인인 각 영역별 배우자역할평가가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을 볼 때 주어진 객관적 조건보다는 각 개인이 이를 어떻게 인지하느냐 하는 것이 결혼만족도와 더 크게 관련됨을 알 수 있다. 뿐만아니라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결혼만족도에 직접영향을 미치기보다는 배우자역할평가를 매개로 하여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섯째 직업별로 보면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부부 양방이 모두 결혼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이는 性 및 정서적 영역과 자녀 및 경제영역 그리고 전체배우자역할평가가 가장 낮은 것과 관련이 되는 것 같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우리나라 농촌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영향력은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기보다는 性 및 정서적 지지영역에 대한 배우자역할평가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다. 이는 부부간의 성적 만족과 애정적 결속감 그리고 대화상대자 및 정서적 지지자로서의 역할이 중시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결과라 하겠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농촌부부의 결혼만족은 배우자역할평가에 의해 가장 많이 영향을 받으므로 역할이론이 결혼만족을 설명하는 설득력있는 이론적 접근이 될 수 있다고 보겠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부부도 도시나 농촌을 망라하고 우애적 부부관계를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이러한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부부교육프로그램이 개발·실시되어야 한다. 특히 性 및 정서적 지지영역

에 대한 배우자역할평가가 농촌부부 양방의 결혼만족도에 가장 영향력있는 변인으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역할수행을 부부간에 서로 잘하지 못한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이러한 역할수행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 내용이어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천주교단체 주관으로 도시지역에서만 매리지엔카운터(Marriage Encounter)라는 부부교육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부부관계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극히 부족한 실정이다.

아울러 동일한 결혼생활을 유지하지만 남편에 비해 결혼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부인이 결혼생활에서 공평성을 느낄 수 있도록 가부장위주의 부부관계 탈피가 요구된다.

또한 가정의 물리적 환경의 기능적 관리역할 증진 교육에 치우쳐 온 현재의 중등가정과 교육도 변화하는 부부관계의 특성에 맞추어 내용과 방법이 개선되어야 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부부간의 性 및 대화와 의논상대자로서의 역할, 정서적 지지 및 치료자역할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이 역할들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인간관계, 이성간의 관계 특성 및 의사소통방법과 같은 교육내용을 보다 많이 포함하여 원만한 가족관계 유지와 함께 미래의 결혼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전국에 걸쳐 농촌지역의 부부를 대상으로 했으므로 대표성은 있으나 행정구역상 郡이하의 지역을 농촌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面 단위가 동시에 표집에 포함된 관계로 조사대상 중 농업에 종사하는 부부가 약 60%정도 되었다. 즉 표집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그 지역에 초·중등학교가 없는 오지마을은 본 연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농촌부부관계 특성으로 일반화하는 데는 주의를 요한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농업에 종사하는 부부 양방의 결혼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조사 대상에 한하며, 이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참고문헌】

- 1) 강은령. 부부의 결혼적응에 관한 연구-취업 주부/비취업 주부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석사학위 논문. 1989.
- 2) 기승주. 부부의 성역할태도에 따른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전남대 석사학위논문. 1988.
- 3) 김명자. 가족관계에 대한 부부의 가치의식과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아세아여성연구 24집, 숙명여대 아세아여성문제연구소. 1985. 139-166.
- 4) 김미숙·김명자. 도시부부의 결혼안정성 및 그 관련변인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1). 1990. 171-183.
- 5) 김순옥. 한국의 가족의사소통연구에 대한 고찰. 한국가정관리학회지 7(2). 1989. 71-83.
- 6) 김양희a. 가족관계학. 수학사. 1991.
- 7) 김양희b. 여성의 의식과 생활실태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9(2). 한국여성개발원. 1991. 135.
- 8) 김효숙. 도시부부의 역할관계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 논문. 1988.
- 9) 대한가정학회편. 가정학연구의 최신정보Ⅲ 아동학·가족학. 교문사. 1990.
- 10) 박찬미·서병숙. 도시주부의 결혼만족도와 이혼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5(2). 1987. 145-162.
- 11) 박태운. 성역할태도와 결혼만족도간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 1983. 139-150.
- 12) 박혜인. 한국여성의 가족주의가치 분석 - 대구·경북 지역의 도시·농촌 비교 -. 효성여대 여성문제연구 17. 1989.
- 13) 송말희·이정우. 도시주부의 커뮤니케이션 이해도와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4(1). 1986.33-48.
- 14) 양현아. 부부간의 결혼실재 상이성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1986.
- 15) 오인숙. 한국 농촌가족의 부부간 권력 및 역할관계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89.
- 16) 옥선화. 한국도시가족의 역할구조분석(I). 성심여자대학논문집 第11輯. 1980. 80-90.
- 17) 옥선화. 현대 한국인의 가족주의가치에 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89.
- 18) 왕석순. 부부간의 의사소통 불안의식과 결혼만족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1989.
- 19) 유영주. 한국가족의 대내적 기능연구. 동국대 박사학위 논문. 1990.
- 20) 윤명희·임정빈. 도시남편의 결혼만족도와 가사노동 참여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2). 1985. 45-60.
- 21) 이동원. 도시부부의 결혼의 질에 관한 연구. 연세대 박사학위 논문. 1988.
- 22) 이미숙. 주부의 자아실현성과 역할태도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79. 23-29.
- 23) 이미숙. 자녀의 성, 연령, 수와 주부의 성역할태도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2).1985.151-168.
- 24) 이미숙. 한국에서의 결혼만족 연구에 대한 고찰 및 평가 -1968~1990. 6까지 국내 연구를 중심으로-. 생활과학 연구논집10(1). 성심여자대학 생활과학연구소. 1990.
- 25) 이성희·김태현. 성역할 태도에 따른 부부간 가족역할구조 분석 -서울시 기혼 남, 여를 대상으로 -. 한국가정관리학회지 7(2). 1989. 109-125.
- 26) 이인수·유영주. 결혼만족도 척도의 타당화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4(1). 1986. 1-14.
- 27) 이정순·박성연(1991). 부부간 커뮤니케이션 유형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9(3). 175-190.
- 28) 이정연. 주부의 결혼만족도와 관련변수고찰. 대한가정학회지 25(1). 1987. 105-119.
- 29) 이형실·옥선화. 남편과 부인의 성역할태도와 의사결정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2). 1985. 31-41.
- 30) 임정빈. 농촌 가정생활 만족에 관한 연구:한국과 미국 농촌가정을 대상으로. 대한가정학회지 28(4). 1990. 135-153.
- 31) 임정빈·문숙재. 가치성향, 의사결정양식 및 가정생활만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6(1). 1988. 149-166.

- 32) 임정빈·정혜정. 취업주부의 역할갈등과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4(1). 1986. 71-93.
- 33) 전길양·김태현. 자기개방과 부부적응에 관한 상관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6(3). 1988. 209-224.
- 34) 조성욱·신효식. 결혼만족도와 자아개념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5(1). 1987. 177-200.
- 35) 최규련. 부부의 성역할태도와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I). *대한가정학회지* 22(2). 1984. 91-102.
- 36) 최규련. 한국도시부부의 결혼만족도 요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1988.
- 37) 최연실·옥선화.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결혼만족도와 결혼안정성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5(2). 1987. 83-98.
- 38) 한국여성개발원. *우리농촌과 여성*. 1990. 40-42. *한남제*. 한국 도시부부의 적용에 관한 일연구. 여성문제연구 제16집. 효성여대부설 한국여성문제연구소. 1988. 19-35.
- 39) 한유상. 도시 장남가족의 분거에 대한 연구. *계명대 석사논문*. 1984.
- 40) Adams, Bert N. "The Family; A Sociological Interpretation." (3ed). Boston : Houghton Mifflin Company. 1980. 309.
- 41) Gullotta, T.P., G.R. Adams, & S.J. Alexander. "Today's MARRIGES and families ; Wellness approach." Brooks Cole publishing Co. 1986.
- 42) Nye, F. I. Emerging and Declining Family Ro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6(2). May 1974. 238-245.
- 43) Nicolas, Patricia C., & B.G. Little. Effect of Economic Resources on Marital Quality in Black Married Coup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 August 1991. 645-655.